

〈일반논문〉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현황과 과제 : 동북아 평화의 공간적 확장과 연대*

김 주 용 **

〈목차〉

- I. 머리말
- II. 사적지 실태조사 현황
- III. 사적지 실태조사의 과제
- IV. 사적지 탐방 플랫폼의 구축과 교육의 강화 : 평화의 공간적 확장
- V. 맺음말

[국문초록]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시행되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3년간 멈춘 상태이기도 하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독립운동의 가장 뜨거운 격전장이었던 만주지역은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저항과 정착, 지배의 공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국가기관의 지원과 독립기념관에서 전담하여 만주지역 사적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만주 전역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되었으며, 200여 개의 사적지를 확인,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적지 조사를 통해 한국의 역사이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역사도 복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6A3A02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하였다. 향후 실태조사는 국외사적지 조사 연구소를 신설하여 별도의 기관이 공간의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 정리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구 재난 시대 새로운 형태의 사적지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독립운동관련 기념관의 경우 사적지 탐방 플랫폼을 만들고 이와 연동하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평화네트를 구축하는 데 장기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 조사연구소, 동북아시아 평화네트워크

I. 머리말

2014년 1월 중국 하얼빈시 하얼빈역에는 한국인들의 숙원이었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식이 거행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줄기차게 제기하였던 안중근 의사 관련 기념물이 마침내 기념관으로 태어난 벽찬 순간이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¹⁾ 공간의 역사는 시간의 역사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온전하게 메꾸어준다. 그것은 사적지라는 이름으로 후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즉 시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공간은 사라진 건축물이나 기념물이라고 할지

1) 『연합뉴스』 2014년 1월 19일,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 이 기념관은 2019년 3월에 내부를 새롭게 단장해서 재개관되었다.

라도 그 의미는 자못 클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역사적 공간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이유도 ‘기억의 소환’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한국독립운동사의 공간적 영역은 전 세계에 걸쳐 있다. 정치적 망명이든 단순한 이주든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한 흔적은 오늘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국외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에 1,000여 개 분포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건물의 형태나 기념비 등 기억을 소환하는 사적지는 10%를 상회할 뿐이다.²⁾ 장소를 기억하고 공간을 소환하는 의도는 시

2) 지금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조사 확인된 국외독립운동사적지는 다음과 같다. 중점과 일반으로 구분은 역사성, 보존성 및 기타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구분	중점	일반	기타	계
중국	69	355	40	464
러시아	10	57	52	119
미국	11	103	46	160
일본	9	26	35	70
말레이시아		2		2
미얀마		2	6	8
싱가포르		2	3	5
인도		4	9	13
인도네시아	1	4	11	16
타이완	1	9		10
태국			4	4
필리핀		1	6	7
우즈베키스탄	1	4	2	7
카자흐스탄	2	13	4	19
몽골	1			1
멕시코	2	14	37	53
쿠바	1	10	2	13
네덜란드	2	2		4
독일		4	2	6
벨기에		2		2
스위스		4	1	5
영국	1	1	2	4
이탈리아		1		1
프랑스	1	8	3	12
계	112	628	265	1,005

대를 초월한 이미지를 복원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만주지역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역사적인 현장이다. 또한 이주 한인사회가 가장 폭넓게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것도 한인사회가 지원하는 인적 물적 자원과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 특히 일제의 탄압과 중국 지방정부의 무관심 내지 일제와의 탄압공조를 통한 독립운동 와해 작업에도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黑龍江省 하얼빈에서 1909년 10월 26일 오전에 안중근 의사가 한반도 침략의 거두인 伊藤博文을 척살하였다. 3·1운동 이후 독립전쟁사 금자탑인 1920년 6월 봉오동전투, 10월 청산리대첩의 공간 역시 바로 만주였다. 이처럼 만주는 한인들이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선도하고 그 인적자원을 끊임없이 배출해 낼 수 있었던 신흥무관학교의 기상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만주지역은 무장투쟁론에 입각하여 서간도의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를 필두로 격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한 곳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만주지역은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선혈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또는 무디어진 세월 속에 항일독립운동의 열기를 느끼기 위하여 이곳을 찾고 있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보고자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州都인 연길을 통하여 오는 데 이 지역은 초기 이주 한인사회가 형성되었으며, 龍井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던 곳이다. 특히 명동촌을 비롯한 이 지역은 항일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식민지 조선의 명예를 거두어 내기 위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만주지역 항일사적지 대한 관심은 1992년 한중수교로 한중 양국의 왕래가 자유롭게 진행되면서 고조되었다. 이때 정부기관보다 개인 학자들의 실태조사가 한중 수교 전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³⁾ 2000년 이후에는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⁴⁾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이후 만주지역 독립운동 실태조사는 2023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

이 글에서는 만주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의 현황, 과제 및 사적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⁶⁾ 국외 한국독립운동사적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실태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도 만주지역이다. 따라서 199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만주지역 실태조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2007년 독립기념관에서 해외사적지팀이 별도로 조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만주지역 실태조사의 현황과 성격 및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시대 즉 공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뉴노멀 시대 실태조사의 향후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제국주의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한국 역사의 공간 조사이기도 하지만 중국인과 연대를 통한 저항이었음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3) 1980년대 후반의 사적지 조사는 대부분 학술회의 및 기념행사에 참가하면서 부수적으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박영석, 『항일독립운동의 발자취』, 탐구당, 1993; 윤병석, 『한국독립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4) 장세운, 「중국 동북지역 유적지 현황과 당면과제」, 『북방사논총』 2, 2004. 장세운은 자신이 직 2002년 독립기념관 실태조사 시 동북지역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지역 유적지 조사, 연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효율적인 보존과 복원,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문화유산으로 독립운동사적지를 현지와 공동으로 전시, 연구, 관광을 제시하였다. 지금도 경청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5) 코로나 19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 가운데 중국 지역은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현지 중국인들에 의해 2020년 청산리 대첩 기념식 및 답사가 이루어졌다(2022년 10월 19일 양세봉기념관장 전정혁 관장 원광대 방문 면담).

6) 지금까지 만주지역 사적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장세운 글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II. 사적지 실태조사 현황

1. 2000년대 이전 사적지 조사 현황

1910년 12월 경상북도 안동인들은 국치를 극복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국외 망명을 단행했다. 내앞마을을 주축으로 안동인들은 언제 끝날 지도 모를 독립운동을 위해 가문의 영광과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세거지를 떠났다. 白下 金大洛은 노구를 망명의 大海에 던졌다. 그가 망명하면서 쓴 『白下日記』에는 슬픈 망명객의 처지를 분통가로 표현했다.

우습고도 분통하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던 말인가.

우습고도 분통하다 부모를 떠나고 나라를 떠났단 말인가.

분통한 일 허다하지만 나의 일 더욱 분통하다.

이기와 오행 정기를 모아서 부모님께 받아 태어날 때에

만물 가운데에 빼어나니 그 아니 귀중한가

네 가지 백성 가운데 선비가 되었으니 그 아니 다행한가(하략)⁷⁾

그들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桓仁縣 恒道村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목적지인 柳河縣 三源浦에 정착하였다.⁸⁾ 석주 李相龍과 일송 金東三은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았다. 먼저 경학사를 만들어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터를 마련하였다. 협소한

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413쪽.

8) 신창균, 「민족운동에 따른 전통명가의 사회경제적 변화 - 안동 의성김씨 내앞(川前) 문중의 경우」, 『한국근현대사연구』 27, 2003.

자리를 벗어나 通化縣 光華鎮에 신흥무관학교를 이전하였으며, 부민단과 백서농장을 만들어 주민 자치와 독립군 양성을 병행하였다.

이처럼 이주는 모국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무대를 찾아 그곳에 정착 생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제강점기 만주는 한인들의 정착지이자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었다. 특히 군벌의 할거, 열강들의 사냥터로서 만주는 중국 관내와는 별개의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인 이주 물결이 만주로 이어졌다. 만주지역은 한인에게는 새로운 이주지였지만, 그곳에서 새 것을 바라는 것은 어찌면 더 고단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뿐 일지도 모른다. 현실의 공간이었던 만주지역 한인사회는 1945년 해방 때까지 지속되었다.

해방 이후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연변지역 단체와 북한에서 먼저 진행되었다.⁹⁾ 1949년 설립된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항일사적지 관련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학계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하였던 시기는 1992년 맺어진 한중수교 이후의 일이다.

만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지원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윤병석, 서굉일, 김상기, 채영국, 박민영, 이현주 등으로 구성되어 모두 3팀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팀은 윤병석, 박민영이 한인독립운동의 무대로서 가장 큰 북간도와 동만주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2팀은 김상기, 채영국이 남만주와 서간도, 3팀은 북만주지역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서굉일, 이현주가 담당하였다. 이 조사에서 서간도와 북간도는 물론이며, 북만주의 하얼빈과 밀산, 장춘, 길림지역까지 세밀하게 사적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⁰⁾ 다만 동북지역 전체를 조사하는 작업인 만큼 시행

9) 장세윤, 앞의 글, 203~204쪽.

착오도 많이 겪었다. 新發屯을 취원창으로 잘못 알고 답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¹¹⁾ 조사팀을 지역별, 사적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적지조사팀과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	조사원	대표 사적지명	사적지 수	비고
북간도	윤병석, 박민영	봉오동승첩지, 청산리전적지 등	42	1팀
서간도	김상기, 채영국	신흥무관학교터, 양세봉 흉상 등	18	2팀
북만주	서평일, 이현주	하얼빈역, 신민부터, 취원창 등	39	3팀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참조

이 조사는 무엇보다도 만주지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독립운동 사적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만주지역을 중범위의 권역 별로 구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였으며, 드넓은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의 공간을 전수 조사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 개방되지 않은 旅順지역 등은 조사되지 못한 지역적 한계를 역시 지닌다. 또한 본격적인 만주지역 조사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역시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먼저 怡隆洋行에 대한 조사 부분이다.

이룡양행의 건물을 찾아낸 것은 필자가 박성수 교수와 보훈처 관계자들과 함께 1991년 9월 8일 이곳을 찾을 때의 일이었다.(중략) 이룡양행은 원래 1층 건물이었었는데 1979년 2층으로 올렸다 한다. 넓이는 가로 18m, 세로 13m로 약 70평에 해당하는 면적이었다. 1933년생인 조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 현

10)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37~38쪽.

11)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위의 책, 704~705쪽.

관의 문 위에 원래 怡隆洋行이라고 쓰여 있던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 한다. 이것을 시멘트로 덮어 씌워 지웠다는 것이다.¹²⁾

1995년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답사기 형태로 쓴 글이다. 이룡양행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를 실행하는 안동교통국이었다. 그만큼 중요한 공간임에도 정확한 지번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인들의 증언만 가지고 확정된 오류의 대표적 예였다.¹³⁾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이룡양행 사적지를 무비판적으로 답사하였으며, 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¹⁴⁾

둘째 합니하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 자리이다.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왕성한 인재를 배출했던 곳이기도 하다. “1912년 당시에는 합니하로 불렸지만 지금은 고려관자란 지명으로 바뀐 곳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후에도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각종 자료에 보이는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터는 합니하가 휘돌아가는 해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¹⁵⁾

한편 조사단의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였던 박영석의 답사기는 개인 답사기이면서 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운 조사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만주지역 조사에 대한 관심을 해소하기 시작하였다. 조동걸은 1993년 이후 두 번의 만주지역 조사

1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위의 책, 619쪽.

13) 중국 大連大 유병호 교수에 의해서 이룡양행이 1950년대 철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유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이룡양행」,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62, 2010 참조).

14) 필자 역시 2008년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 실측 조사 시에도 이룡양행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선행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였다.

15)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앞의 책, 658~659쪽.

를 통해 연길, 심양, 하얼빈 지역의 답사기를 간행하였다.¹⁶⁾ 윤병석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만주지역 답사기를 출간하였다. 이렇듯 한중수교는 만주지역 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학자와의 공동 답사가 실현되기도 했다.

2. 2000년 이후 실태조사 현황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국외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외 한국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면서 국가기관의 참여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외소재 항일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주지역 전수조사를 단행하였다.¹⁷⁾ 당시 만주지역 조사단은 단장으로 박환, 조사원으로 황민호, 조규태가 참여하였으며, 국가보훈처 관계자 및 현지 관계자를 포함해서 총 8명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 목적은 먼저 만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유적지 관리 및 기념물 설치의 기초조사 및 해외사적지 탐방프로그램의 기초 조사 등 일곱 가지였다. 그 가운데 해외사적지 탐방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일반인과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다.¹⁸⁾

실태조사에 소요된 기간은 총 35일간이었다. 만주지역 전역을 조사하는데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한 최초의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16)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17) 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 국가보훈처, 2001.

18) 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 국가보훈처, 2001, 347쪽.

는 총 139곳의 사적지가 조사되었다. 기존 조사에서 미흡한 사적지와 새롭게 추가된 사적지도 포함되었다.¹⁹⁾ 실태조사 기간도 장기간이었으며,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조사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상설 조직에서 운영된 조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 학자와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때 조사 당시 수집했던 자료 등이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중 양국 학자들이 참여한 사적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조동걸, 서중석, 신주백이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는 박창욱, 최홍빈, 김춘선, 김태국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한중학자들의 공동 작업은 가장 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해빙기가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이기도 했다.²⁰⁾ 특히 청산리전투 80주년 기념 특별 사적지 조사 형태를 띠고 진행되었고, 이때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서중석은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이라는 역저를 발간하였다.²¹⁾

한편 2002년 독립기념관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국외사적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²²⁾ 전 세계 독립운동사적지를 조사하기 위해 모두 7개 팀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조사단은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각 지역마다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동북지역(만주)은 단장 권대웅, 단원 장세윤, 김형목, 신주백 등 만주지역 독립운동 전공자 5명의 구성원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22일이었다. 조사지역은 동북 3성 전역이었

19) 국가보훈처, 위의 책, 352~353쪽.

20) 한국과 중국, 북한 공동의 학술회의가 연변대학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주제는 만주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었다.

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22) 문화관광부, 독립기념관, 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 2002, 4쪽.

다.²³⁾ 이 조사의 특징은 그 동안 확보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확실한 사적지 위치를 비정하였다는 데 있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 단체에서 건립한 기념물에 대한 조사도 시행되었다. 다만 안중근 의사와 관련 있는 하얼빈총영사관 전기 및 후기 건물에 대한 고증이 잘못되기도 하였다.²⁴⁾ 현재 화원소학교 건물이 초기 즉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의거 직후 구급당했던 곳인데 이를 1926년 건립된 일본총영사관으로 비정하였다.

2005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광복 6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안내책자 발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120여 곳의 사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²⁵⁾ 김주용

23) 문화관광부, 독립기념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위의 책 1, 20~145쪽.

24) 문화관광부, 독립기념관, 한국근현대사학회, 위의 책 1, 130~133쪽.

25) 이는 중국 4세대 지도부가 추진한 동북진흥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먼저 길림성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루트는 백두산(장백산)이다. 다음으로 두만강 변경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은 낙후한 북한 지역에 비해 중국에서는 충분한 자본으로 圖們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였다. 2012년 도문강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자국의 여행객들에게 조중 접경지역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관(세관) 다리를 주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온성군 남양과 도문의 대비되는 모습을 단순 감상하는 차원이었다. 두만강광장 조성은 뱃놀이 체험활동까지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3국 접경지역인 방천에 망해각을 새롭게 정비하여 방천전망대로 재정비하였다. 러시아와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만 60위안에 달한다. 이 지역은 중국 관내에서도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국경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북진흥전략에서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향촌에 새로운 이미지의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明東村이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명동촌은 2018년 6월에 새롭게 조성되었다. 명동촌에는 ‘중국조선족 교육의 발상지’라는 큰 입간판을 세워 이곳이 한인이 아닌 조선족들이 이주해서 터를 잡고 근대적 교육을 실시한 곳임을 알렸다. 복원된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광장에는 1919년 3월 13일 만세운동 기념비와 김약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기념비를 건립하여 역사적으로 반일 역사를 조선족=중국 국민까지 연장하였다. 요녕성지역에도 동북진흥

을 단장으로 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답사팀이 만주지역 조사를 담당했다. 조사는 1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기존 조사된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연변지역(북간도) 한국독립운동사적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청산리대첩비, 봉오동전적비, 명동촌(명동학교, 운동주생가, 명동교회 등) 등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조사였다.²⁶⁾ 뿐만 아니라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세워진 팔녀투강비를 조사하였다. 이 기념비는 한중 양국의 공동항일투쟁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적지였다.²⁷⁾

2007년 정부 방침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내에 해외 사적지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국외사적지 실태

전략에서 간과하지 않는 전쟁유적 관광지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1년 심양 유조구에 九·一八歷史博物館을 설립하였다. 역사박물관은 기념비와 전시관이 결합한 형태로 건축되었다. 1991년 5월 9.18사변 60주년 당시 대외 개방하였으며, 건립 당시에는 ‘九·一八事變陳列館’이었다. 이처럼 역사박물관은 중국 국치일 행사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지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중국의 애국 교육기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다(김주용, 「만주사변 이후 중국 요녕성 지역 제국주의 전쟁유적」, 『한중관계연구』 7-2호, 2019 참조).

26)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중국 동북』, 6~51쪽. 당시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각 답사단에 참여한 후 인천공항 등 한국을 알리는 곳에 배치하고자 했으나 기관 간의 소통부재 및 단기사업의 특성상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27) 목단강시 사회과학원 건물과 가까운 곳에 거대한 조각물이 유유히 흐르는 목단강을 바라보고 서 있다. 바로 八女投江紀念碑다. 한·중 공동항일투쟁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념비는 1938년 당시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서 항거하다 목단강에 투신한 동북항일연군 소속 여자대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팔녀’ 가운데 두 명이 조선인이다. ‘金順愛’와 ‘安順福’이 그 주인공이다. 안순복은 밀산 항일유격대원 박덕산의 아내로 밀산지역에서 활동한 혁명열사이기도 하다. 기념비의 題字는 周恩來의 부인 鄧穎超의 글씨다. 팔녀투강기념비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경외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경 蘆溝橋에 위치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과 하얼빈의 동북열사기념관에서도 삽화로 이들의 항일투쟁을 기리고 있을 정도로 ‘팔녀 투강’은 중국의 항일 투쟁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추앙받고 있다.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²⁸⁾ 만주지역은 장석흥을 단장으로 한 4명의 조사단이 만주지역 가운데 기존 조사에서 미흡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인 長白縣과 汪清縣 지역을 집중 조사하였다. 왕청현 羅子溝에서는 東林학교 학생들이 백초구 일본영사관 영사경찰이 학교를 습격하자 피난처로 사용했던 '신선동굴'에서 벽면에 태극기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를 조사단이 처음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⁹⁾ 뿐만 아니라 北一학교 부교장이었던 金南極의 순국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일제의 만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³⁰⁾ 琿春縣 大荒溝의 13열사 사적지와 하마탕의 金相和 열사기념비는 그동안 한국독립운동학계에서 반쪽자리 조사에 치중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적지였다. 사회주의자들과 관련된 독립운동사적지 조사로 외연을 확대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장백현 正蒙학교터와 大韓獨立軍備團 본부 터도 비정하였다.³¹⁾ 사적지 조사는 공간의 조사이다. 기록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공간조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하였다.

2007년 10월 만주지역 미조사 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김영신을 단장으로 4명의 구성원이 답사를 추진하였다. 지역은 내몽고와 흑룡강성 치치하얼, 가목사를 비롯한 지역이었다. 특히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인 의사 김필순의 거주지와 그가 용강현에 세운 독립운동기지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경북 출신의 독립운동가 배치운의 순국 장소와 기념비 및 대중교 독립운동가 강철구의 순국지였던 가목사 감옥도 처음 조사

28) 2007년 이후 사적지 실태조사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실시한 현황을 서술하였다.

29)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7, 2007, 78~81쪽.

30) 북일학교 교장 양하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화를 면하였다.

31) 김주용은 대한독립군비단과 광정단 본부터를 조사하면서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김주용, 「중국 장백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활동과 성격-대한독립군비단과 광정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2, 한국사학회, 2009).

하였다.³²⁾

2008년 황민호를 단장으로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주로 密山과 珠河縣(尙志市), 延壽縣의 미조사 사적지가 그 대상이었다. 먼저 밀산에서는 ‘홍범도 도량’과 김성무가 도산 안창호와 협의하여 개척한 십리와 지역(홍농촌), 知一소학교, 북로군정서 총재였던 徐一의 순국지를 비정하였다.³³⁾ 특히 서일의 순국지는 當璧鎮 중촌 출신의 대종교 후손이었던 李昌燮(전 중국 여자 스케이트팀 감독)의 구술 자료를 확보하여 비정할 수 있었다. 밀산 지역은 이전에도 사적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930년대 사회주의 항일운동 사적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허다했다. 이 조사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초대 주장을 지냈던 朱德海를 비롯해 윤낙범, 오복, 이종근 등이 만주국군과 항전하면서 희생당한 곳과 묘역 및 기념비 등을 확인하였다.

주하현에서는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의 순국지를 확인하였다.³⁴⁾ 주하현 조사 시에는 그곳에서 공직생활하고 퇴직했던 한득수의 도움이 컸다.³⁵⁾ 김규식이 활동했던 시기의 주하현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인근의 연수현, 방정현 등의 독립운동가들은 교통의 요지인 주하현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였다. 1926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도 이미 독립운동가들의 토대구축 속에서 주하현 일면파에서 성립하였다.³⁶⁾ 또한 김규식의 부

32)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7, 2007, 68쪽.

33)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264쪽.

34)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82~283쪽.

35) 한득수는 하동마을에서 태어나 상지시 수리공사에서 근무한 후 조선족 역사 편찬에 매진한 인물로 그의 노력으로 『상지 조선족 100년사』가 출간되었다.

36) 김준엽·김창순의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에는 만주총국 성립 당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조봉암, 최원택 등은 곧 만주로 파견되어 하얼빈 이동 일면파에서 김철훈, 김하구, 윤자영 등과 회합하고 조봉암의 제의에 의하여 1926년 5월 16일 만주총국을 조직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5월 16일 위사현 일면파 소재 중국인 여관에 밀회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모두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비서

인이 주명수의 묘역도 확인하였다. 그는 남편인 김규식이 1930년대 독립 운동 진영에 의해 피살당한 후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1970년대 초반까지 주하현 하동마을에서 살았다.³⁷⁾ 하동마을은 이른바 안전농촌이었다.³⁸⁾ 이곳에는 ‘조선족’들이 하동농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동 3계와 5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 가운데 해방 직후 ‘중국인들의 습격’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³⁹⁾

하동농장은 총 22楔로 이루어져 있었다. 농장 설치 당시에는 ‘楔’라는 단위로 촌락의 명칭이 명명됐으며, 현재는 南興村·大星村으로 불리고 있다. 珠河縣 공서와 하얼빈 총영사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하동농장이었다. 하동마을은 김규식이 연수현과 주하현을 오가면서 거점역할을 했던 곳이다. ‘김규식’,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를 검색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유공자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규식, 호는 우사이며 노은 金奎植과는 한자까지 동

부, 조직부, 선전부의 집행부를 설치하여 책임비서 조봉암, 선전부책 윤자영, 조직부책 최원택으로 결정하고 지역 조직을 위하여 지구간부를 설치했다.” 위사현 일면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한국 최고의 석학들이 저술한 책에서. 아마 이 책에서 인용한 히라에 센지(平江仙二)가 쓴 책 『조선민족독립운동비사』에 만주 총국 창립지를 ‘길림성 위사현 일면파 原野’라고 한데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1925년 당시 주하와 위하는 길림성에 속해 있었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 성립 이후에는 빈강현에 속했다. 하지만 ‘위사현’은 어디에도 없다. 위사현은 위하현에 흐르고 있는 위사하를 잘못 이해해 위사현으로 통칭한 것 같으며, 현재 일면파 남쪽 30km 지점에 위하진이 있다. 특히 ‘위사현 일면파’는 주하현 일면파의 명백한 오류이다.

- 37)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280쪽.
 38) 하동안전농촌에 대해서는 김주용, 「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 『백산학보』 84, 백산학회, 2009 참조.
 39) 2008년 6월 23일 연수현 거주 조선족 안승철(1930년생) 구술. 이곳에는 주로 전라남도 담양 출신들이 거주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연변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정판룡이 하동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의 회고록 『고향떠나 60년』에도 이곳 생활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일하다. 그리고 안동 출신의 김규식이 또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노은과는 한자를 달리 쓰고 있다.

연수현 조사 시에는 부현장을 역임했던 김수철이 동행하면서 신민부 간부로 활동했던 박세황의 묘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⁰⁾ 연수현에서는 이미 한국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상당히 축적하여 『연수현 조선족 100년사』를 출간할 정도였다.⁴¹⁾ 연수현에는 수풍댐으로 수몰당한 이재민들의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魚志郷이다.

아성현 조사에서는 안동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취원창을 찾았지만 마을에는 조선족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김동삼 며느리 이해동은 1934년부터 취원창에서 생활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하얼빈, 그리고 1989년에 이르러서야 조국으로 돌아왔다. 독립기념관 안춘생 관장은 이해동 여사를 독립기념관으로 초청하여 조국의 그리움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 그의 『만주생활77년』에는 취원창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취원창이라는 부락은 행정상 아성현의 촌인데 그때만 해도 300호가 넘는 큰 동리였다. 우리 교포들은 근 백호나 모여 살고 있었으며, 부락 동쪽에는 배극도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역시 우리 교포가 살고 있었다. 이래서 하동농

40) 아쉬운 점은 박세황의 묘역과 독립운동 사실 확인에도 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했던 것이다. 박세황(1882~1942)은 1882년 1월 7일생으로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오하리에서 박양수의 장남으로 출생했으며, 자는 북농이다. 1923년 길림성 연수현으로 이주한 그는 신민부에 참여해 1926년 신창학교를 세웠고, 신민부가 군정파와 민정파로 나뉘어졌을 때 민정파로 활동했다. 1927년 북만주한인교육회의에 연수현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동광학교와 보명학교를 설립해 한인 민족교육 활동에 주력했다. 1930년 7월에 위하현에서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자 흥진, 지청천, 신숙 등과 함께 당장과 당규를 제정하는 데 참여했다. 1932년 만주국 당국에 체포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1942년 10월 4일 사망했다.

41) 연수현 100년사는 당시 북경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였던 김병호가 책임 집필과 감수를 맡았다.

장을 포함한 취원창, 우리 교포는 광복 직전 근 200호 집중한 북만 지구에서는 우리 교포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부락이라 할 수 있다. 그때 취원창은 송화강이 가까워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어미지향이라고 하였다. 비극도강은 아성현과 빈현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고 있으나, 한강물을 막아서 붓도랑을 동서로 내고 동쪽물은 하동농장이라 했으며, 서쪽물로 개간한 농장을 하서농장이라고 하여 통틀어 취원창 농장이라고 하였다.⁴²⁾

석주 이상룡의 묘역을 조사하였지만 ‘조선인 공동묘지’였다고 알려진 곳만 확인하였을 뿐 반장하기 전 석주의 묘에는 어떠한 표식이나 기념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⁴³⁾ 당시 국내 신문 기사에는 비교적 자세하

42) 이해동, 『만주생활 77년』, 명지출판사, 1990, 105쪽.

43)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76쪽. 취원창은 현재 흑룡강성 아성구 거원진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2008년 8월 답사팀은 취원창 독립운동기지를 찾기 위해 거원진을 방문하였다. 현재 조선족이 살고 있지 않은 이곳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만 같았다. 현 시점에서 취원창 수전농장을 처음 개간한 특정 인물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과 전해 내려온 소문 등을 종합하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농장개간을 직접 실행한 사람들을 알 수 있다. 영덕군 출신의 박의연 삼형제와 그들의 일가 되는 박주정이 있고 안동군이 고향인 김정식 중형제와 몇 해 뒤에 이주해 온 월송 김형식이 있다. 또 안동군 출신인 이광민 부자와 그의 종숙 되는 이승화, 그리고 임동면이 고향인 고성이씨 이정인 일가, 안동이 고향인 전주유씨, 유동범 형제, 고령출신, 수전 개간 전문가인 김우기 등이 포함된다. 취원창의 대표적 인물은 석주 이상룡이다. 그는 동생 이봉희와 조카 이광민, 당숙인 이승화가 같은 묘지에 묻혔다가 1990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국내에 봉환되었으며, 국립묘지 임정요인 묘역에 안치되었다. 취원창은 이상룡·김동삼이 활동했던 1920년대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항일근거지였으며, 상당수의 한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현재 한인들은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상룡의 장지였던 묘지 구역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옥수수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1920-30년대 북만주 지역 항일독립운동 근거지이며, 김동삼의 며느리 이해동 여사가 취원창에 살다가 왔고 현재에는 조선족이 거의 살지 않으며, 조선족이 살던 마을에는 모두 한족들이 살고 있다.

게 한인학교를 묘사하고 있었다.

북만 아성현 취원창에는 조선사람의 동원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부터 9년 전에 동포들이 자제 교육을 위하여 설립하였던 것으로 설립한 이래 9년 간에 많은 아동을 양성하여 북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교인데 최근에 이르러 중국관청에서 전부 중국어로 교수를 쓰라고 동 학교 당국에서는 그리할 수 없다고 대표로 월송 선생을 아성현 지사에게 보내어 교섭하였으나 하등 효과가 없으므로 다시 주민들은 대책을 강구 중이라 한다.⁴⁴⁾

초대 교장으로 알려진 박경중(朴慶鍾, 1875~1938)은 영덕 사람으로 석주 이상룡의 친매부이다. 경학사 설립 멤버이기도 한 박경중은 을미의병 때 이상룡과 의병진을 구성해 항전하기도 했다. 경술국치 이후 이상룡을 비롯한 안동사람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던 박경중은 1920년대 남만주의 항일근거지를 포기하고 취원창으로 와서 동원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바로 독립군의 전초기지가 됐다. 교사들 가운데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강동호도 포함돼 있는데 그는 김동삼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이였다. 이처럼 취원창은 동원학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돼 있었다.

2011년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으로 유하현과 통화현 일대 신흥무관학교 관련 사적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단장 김주용, 단원 유필규, 임공재, 김태국으로 이루어진 답사단은 연변지역에 새롭게 단장한 기념물을 조사한 후 서간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신흥무관학교 및 유관단체의 사적지 조사를 실시했다.⁴⁵⁾ 2000년대 독립기념관에서 예산을 지원

44) 『동아일보』, 1930년 12월 24일자

45)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1, 2011.

했던 기념물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신흥무관학교 관련 사적지에서는 학생들의 기숙사와 우물터를 처음 확인하였다. 우물은 식수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작은 샘물 형태로 남아 있다.⁴⁶⁾ 삼원포 추가가의 신흥강습소는 늘어나는 학생 및 새로운 청사 마련을 위해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게 된다.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위치는 그 동안 현재 고려관자로 불리는 곳과 ‘소마록구’로 불리는 곳을 비정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⁴⁷⁾

이 조사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교사로 재직한 배달학교 관련 사적지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1918년 오늘날 通化縣 富康鄉 倍達村에 배달학교가 설립되었다. 교장 趙鏞錫은 한족회 회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교사들 가운데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도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야학과정을 설치하여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였다. 1920년 경 신참변 당시 일제의 학살로 조용석, 김기선, 조동호, 승대언, 승병균, 최찬화, 김기준 등이 희생당하였으며, 그들을 유해를 안장한 ‘7열사 묘역’이 배달촌과 인접한 곳에 갖추어져 있다.⁴⁸⁾

남만항일유격대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홍광의 흉상을 확인하였다. 신빈현 열사능원 내 세워져 있는 이홍광 흉상은 시에서 관리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터이지만 해방 후 심양지역 한인귀환 업무 관장했던 동북한교판사처 건물 터를 확인하였다.⁴⁹⁾ 1946년 2월경에 설치된 동북한교사무실에서 한인들의 보호와 한반도로의 귀환업무를 담당했다. 김홍일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몰려드는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건물은 2000년 초까지 있었지만 서탑이

46)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1, 28쪽.

47)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위의 책, 32쪽.

48)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위의 책, 52쪽.

49)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위의 책, 90쪽.

개발되면서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로 바뀌었다.

2016년에는 단장 김주용, 단원 오대륙, 김영장, 이홍석 등의 조사단이 답사를 시행하였다. 밀산에 새롭게 건립된 십리와 기념비와 서일기념비를 확인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본침략 관련 전쟁사적지인 東寧 요새 및 그 주변에 있었던 신성자성 ‘일본군위안부 터’⁵⁰⁾를 확인하였다. 현재 주변 거주 한족들은 그곳을 ‘일본군위안소’로 기억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단장 박민영, 단원 오대륙, 김영장의 조사팀이 흑룡강성 최북단 이춘시 가양현 구성촌의 한인독립운동 기지와 지금은 멸실된 남자현 지사의 묘지터를 조사하였다. 구성촌 일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독립운동 공간이었으며, 특히 『독립신문』 지국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 한인 마을로서 고려촌이라는 지명을 기억하고 있는 촌로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⁵¹⁾

2019년에는 6일간 북간도 지역의 심화조사를 진행하였다. 2007년 조사 당시 훈춘시 영안진 대항구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김남극 묘의 상태를 심화 조사하였으며,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활동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하규의 묘도 새롭게 조사하였다.⁵²⁾

정부 및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단은 아니지만 개인들 역시 만주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박환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⁵³⁾ 김주용은 독립기념관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완하여 대중서로서의 답사기를 냈다.⁵⁴⁾ 최범산은 최근에 『암록강아리랑』이라는 답

50)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6. 참조.

51)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48~249쪽.

52)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9, 318~319쪽, 218쪽.

53) 박환, 『박환교수의 만주지역 한인유적답사기 -개정판-』, 국학자료원, 2012.

54) 김주용, 『역사를 따라 걷다』 1, 선인, 2013; 『역사를 따라 걷다』 2, 선인, 2015; 『역

사기를 출간하여 주목을 받았다.⁵⁵⁾

Ⅲ. 사적지 실태조사의 과제

독립운동사 사적지 실태조사의 과제를 점검하면서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이다. 장세윤은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현지 연구자 및 기관, 단체등과 연계, 협조 유지

둘째 항일유적지가 급속하게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연차적 조사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셋째 전문적이고 집중적 조사필요

넷째 유적(지) 복원 및 기념사업은 한국 정부당국과 학자, 기관과 중국 현지 기관 및 단체, 연구자,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하드 웨어(유적지, 기념물 등의 발굴과 보존, 복원)와 소프트웨어(관리, 운영프로그램 등)의 유기적 결합과 상호 보완작용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현지의 조선족 교사, 학생, 지역주민의 민족교육, 민족문화, 민족의식 제고차원의 민족교육과 연계하여 보존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의 지원과 연계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

일곱째 근대 민족운동 유적지는 고조선, 발해 등의 고대사 관련 유적지와 연계하여 소수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민족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사를 따라 걷다』 3, 역사공간, 2017.

55) 최법산, 『압록강아리랑』, 달과소, 2012.

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지 조사 방법은 적어도 몇 개월간이라도 장기간 체류하며, 한인들의 언어, 민속, 문학, 역사 등 종합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⁵⁶⁾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제언이며 경청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차적 조사계획의 수립 등은 독립기념관에서 2007년부터 이미 5개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더라도 의미있는 제언이다. 다만 '제언'에 그칠 염려가 아주 큰 단점이 있다. 먼저 위의 사항들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와 같이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천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개 '팀'으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지 조선족 학교와의 연계는 우리식 사고방식의 표출이다. 그들은 중국 교육부에서 규정된 학습교과목에 따라 교육한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을 관심 있는 조선족 교사 차원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대시기와 독립운동 관련사적지를 연동해서 학교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기본좋은 일회성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위의 제언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팀'을 운영해서는 역부족이라 외연을 확대해서 '국외 독립운동사적 조사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실태조사의 기준은 주제별, 인물별을 정중앙으로 삼고 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주지역의 봉오동, 청산리 관련 지역과 인물들의 활동 노선을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인물별로 세분화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지역 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병, 임시정부, 신흥무관학교, 사회주의 계

56) 장세윤, 앞의 글, 231~233쪽.

열, 무장투쟁 등 다양한 독립운동 계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신흥무관학교를 주제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흥과 관련된 사적지를 설정해야 한다. 추가로 신흥강습소,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등 유하현, 통화현 지역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정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적지가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되었다고 해도 문헌자료와 아직까지 현지 조선족 사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인물 중심의 테마실태조사는 조사지역을 광범위하게 해도 그 인물을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조사의 질은 훨씬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도 시간은 단기와 장기형 조사로 나누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 조사한 후 발간하는 조사보고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독립기념관에서 발행한 총 20권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서는 2013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국외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질적으로 그곳을 답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차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보고서가 아닌 저서 방식으로 풀어서 단행본을 출간한다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⁵⁷⁾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조사하고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은 공신력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조사한 후 보고서 이외의 답사기 형태로 발간한다면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사적지 조사 시 준비했던 자료와 답사 시 수집했던 자료를 모아서 답사 자료총서 발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독립기념관 재직 시 답사와 병행하면서 수집된 자료가 아직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는

57) 김주용, 『역사를 따라간다』 1·2, 도서출판 선인, 2013·2015 참조.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총서의 발간은 새로운 연구 계획으로 승화되어 한 단계 높은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의 추진 주체는 국제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 각 지방에 있는 항일관련 유관기관(박물관, 기념관)과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요녕성의 경우 심양의 9.18역사박물관은 2011년 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관장인 范麗紅은 한국 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와 관련 있는 인물들의 조사 시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길림성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한국독립운동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다. 길림시의 한국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北華大學과의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대학 염송심 교수는 이미 석주 이상룡이 순국했던 서란현 지역을 조사하고 저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경북지역 출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흑룡강성은 국가급인 동북열사기념관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동북열사기념관이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국내 조사와는 기간 및 예산, 인력에서 다르다. 무엇보다도 외국에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적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같이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계획 및 치밀한 자료수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팀제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보다는 집

58) 2018년 9월 14일 북화대학 학술회의시 인터뷰(염송심 교수).

단 조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공간을 정확하게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팀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IV. 사적지 탐방 플랫폼의 구축과 교육의 강화 : 평화의 공간적 확장

만주지역은 전 세계 한국독립운동사적지 가운데 제국주의 일본과 직접 전투를 치른 전장이자 공간이었다. 따라서 한중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탐방단이 만주지역을 답사하였다. 관광지와 연계된 백두산 답사는 물론이며, 여름방학에는 학생 탐방단이 거의 매일 출발할 정도로 관심있는 지역이 만주였다. 따라서 사적지 조사와 한국독립운동사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대체로 4개 코스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중 양국 공동 항일투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1안에는 그동안 도외시 되어 왔던 연변항일투쟁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훈춘 대항구 지역과 왕청현 나자구, 태평구 지역의 기념물을 답사코스에 포함시켰다. 물론 접근성 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제별 답사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한 사적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표에는 기입하지 못했지만 왕청현 문화재로 등록된 신선동굴 태극문양을 보는 것도 답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⁵⁹⁾ 제2안에 포함된 해성의 윤희순항일기념비와 무순전범관리소, 양세봉홍상 등은 한중 양국이 모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5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7, 2007, 78~81쪽.

윤희순항일기념비는 현재도 중국인 친구 葛福順의 손자가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는 “조부의 유언으로 지금까지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 자기 자식에게도 똑 같은 유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⁶⁰⁾ 이처럼 윤희순은 70여 년 전에도 중국인들과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도 한중 양국 우호증진의 표상으로 남고 있다. 양세봉홍상 역시 윤희순기념비와 같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항일투쟁한 기념비적 상징물이다. 제3안의 특징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설립된 주하현(현 상지시)에 소재한 조일만기념관과 밀산의 주덕해의 항일투쟁과 관련있는 홍량촌 4열사 기념비를 답사하는 것이다. 기존 답사코스에 한중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공동투쟁했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역사의 공통분모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밀산의 경우는 러시아와 접경지역이므로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4안은 평화의 도시를 꿈꾸고 있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답사코스이다. 침략의 상징물인 731부대 기념관이 있으며, 인류평화를 지향했던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중일전쟁 이후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견지했던 정율성기념관⁶¹⁾이 바로 하얼빈시에 있다. 특히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정율성기념관은 항일투쟁을 전개한 시기는 다를지라도 한국과 중국인들에게 남긴 자산을 감동적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이면서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인류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였다. 코로나 19

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년 9월 8일 탐방 녹취.

61) 정율성기념관은 2009년 7월 25일 음악도시 하얼빈시 우의로에 마련되었다.

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 19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다. 영국 정부의 연구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월포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⁶²⁾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제로 하면 바이러스와 인류의 미래는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주지역 사적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사적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만주지역 200여개의 한국독립운동사적지 가운데 한국인 탐방객이 찾을 수 있는 사적지는 제한되어 있다.⁶³⁾ 따라서 전문 학자들의 실태조사의 이동로 및 사적지에 대한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공간과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 조성 필요하다. 그것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플랫폼을 만주지역 사적지로 연결하여 이를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국가 간의 국경 봉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적지 활용 방안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는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팀과 현지 교류기관에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활용방안과 연동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⁶⁴⁾

한편 코로나 19시대 교육현장에는 새로운 교수기법이 등장했다. 이것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교육방식

62) 『연합뉴스』 2020년 8월 23일자.

63)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사이트 참조.

64) 연변지역에서 항일투쟁사를 ‘일사양용’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국인민항일기념관 또는 9.18역사박물관, 동북열사기념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통’항일투쟁 분모를 이끌어내어 후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은 사적지를 활용할 때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⁶⁵⁾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교수학습의 형태로 나타났다.⁶⁶⁾ 비대면의 답사 프로그램학의 시행은 독립기념관 또는 지역에 설립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⁶⁷⁾ 이것이 이른바 미디어 생태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미디어는 그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결합하여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과정을 매개하며,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가 매개하는 변화 과정이다.⁶⁸⁾

한국은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웹과 앱을 통해 박물관에 접근할 수 있다.⁶⁹⁾ 오늘날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은 전통적인 소장품, 전시자료의 보존 및 전시 중심에서 지식 전달, 습득(교육), 문화체험(행사)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니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기념관, 박물관 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쌍방 소통의 기능까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맞춤형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념관, 박물관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관 등에서는 사적지에 대한 전시 독립공간을 모바일에 구축하여 온라인에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 현지답사와 오프라인 교육이 시행되어도, 결국 온라인은 보조 수단이 아닌 교육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65) 이동후, 「코로나 19시대의 디지털 교실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35-2, 2021, 101~108쪽.

66) 팬데믹 시기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대면,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67) 독립기념관 또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8) 이동후, 앞의 글, 101쪽.

69) 이연수, 「코로나 공존시대, 국내·외 전시사례」, 『독립기념관 제8회 전시론편서 발표문』, 2021. 6, 25쪽.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시대의 일상은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만주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 활용 방안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적지 앱 제작이 필요할 것이며, 시공간을 3D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념관의 비대면 교육은 향후 코로나 19 이외의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념관은 사적지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정보 기술면에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라 여겨진다.

V. 맺음말

실태조사는 공간만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다. 시간 즉 기록의 역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상 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연구행위이다. 국외지역 한국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조사는 불과 20년 남짓하다. 특히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은 10년 정도이다. 그러한 여정을 감안하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지자체 등에서의 관심도 그에 동반되어 상승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했던 실태조사의 현황과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한중수교 이후 실태조사의 특징은 국가기관보다 단체에서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도 지원이 별로 없었다. 예컨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와 같이 유관기관에서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에서도 2002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만주지역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둘째 2000년 이후에는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만주지역 전수조사가 두 차례 진행되었다. 표현은 전수조사이지만 광활한 만주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했다. 2007년 독립기념관에 국외사적지 전담팀이 조직되면서 본격적인 만주지역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거의 해마다 만주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일반인들의 탐방자료로 활용되었다.

한국독립운동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듬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실태조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계기 행사로 3.1운동 100주년 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단박약’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계기 행사로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기념해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즉 ‘언 발에 오줌 누기 식’과 같은 단발성 행사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자 한중양국이 공동으로 기념해야 할 역사적 공간에 대한 모욕으로 그칠 우려도 있다.

또한 만주지역 탐방은 개인의 탐방루트와 단체별, 운동계열별로 정리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연관되지 않은 인물 또는 단체가 뒤섞이면 탐방주체들이 받는 피로도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인들과 함께 하는 탐방도 필요하다.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가는 탐방으로 중국인들 가슴에 한국독립운동의 열정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사적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투쟁은 우리의 역사이면서도 중국인들에게도 1932년 이후에는 공통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킬 보다 나은 한중우호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동북아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함께 투쟁했던 역사를 복원하는 작은 시도가 사적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는 지구재난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외사적지 실태조사의 미래 버전이기도 하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속에서 현지 실태조사가 불가능할 때 현지사회를 활용하는 방식, 비대면 형태의 사적지 활용 및 교육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2023.02.28. 투고 / 2023.03.31. 심사완료 / 2023.04.03. 게재확정)

[Abstract]

**Current Status and Tasks of Investigation of Historic Site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
Spatial Expansion and Solidarity of Peace in Northeast Asia**

Kim, Jooyong

The fact-finding survey of historical site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was conducted for about 30 years from the early 1990s to the present. Of course, due to Corona 19 in 2020, it has also been stopped for 3 years. The Manchuria region, which was the hottest battlefield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was also the home of Koreans.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historical site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as carried out in a way to investigate the space of resistance, settlement, and domination.

After 2000, support from state institutions and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ook full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historical sites in the Manchuria region. About 200 historical sites were investigated and organized, and Korean history, but history that received active support from China was also restored. For future fact-find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verseas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and conduct the work of a separate institution researching, recording, and publishing the history of the space. In addi-

tion, a new form of historical site utilization plan in the era of global disasters should be devised. A long-term alternative must be sought to build a Northeast Asian peace net by creating a historical site exploration platform and strengthening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it.

□ Keyword

Manchuria regio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al sites, fact-finding survey, Independence Hall of Korea, overseas historical site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 Peace Network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 국가보훈처,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중국 동북』, 2005.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7, 2007.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8, 200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1, 201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6, 2016.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01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9, 2019.
- 김주용, 『역사를 따라 걷다』 1, 선인, 2013.
- 문화관광부, 독립기념관, 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1, 2002.
- 박영석, 『항일독립운동의 발자취』, 탐구당, 1993.
- 박 환, 『박환교수의 만주지역 한인유적답사기 -개정판-』, 국학자료원, 2012.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 이해동, 『만주생활 77년』, 명지출판사, 1990.
- 윤병석, 『한국독립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 최범산, 『압록강아리랑』, 달과소, 2012.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 김주용, 「중국 장백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활동과 성격 - 대한독립군비단과 광정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2, 한국사학회, 2009.
- 김주용, 「만주 '河東安全農村'의 설치와 운영」, 『白山學報』 제84호, 백산학

회, 2009.

김주용, 「중국 요녕성 지역 전쟁유적」, 『한중관계연구』 7-2, 2019.

신창균, 「민족운동에 따른 전통명가의 사회경제적 변화 - 안동 의성김씨 내 앞(川前)문중의 경우」, 『한국근현대사연구』 27, 2003.

유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이릉양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이동후, 「코로나 19시대의 디지털 교실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35-2, 2021.

이연수, 「코로나 공존시대, 국내·외 전시사례」, 『독립기념관 제8회 전시콘퍼런스 발표문』, 2021. 6.

장세윤, 「중국 동북지역 유적지 현황과 당면과제」, 『북방사논총』 2, 2004.